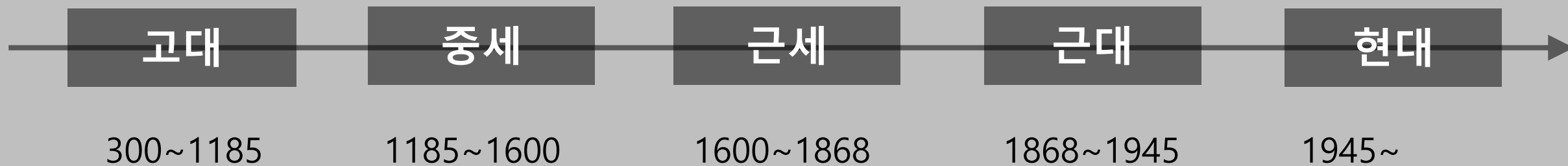


2. 고대 일본 중앙집권 국가의 형성

부산대학교 2024년 여름계절수업 <일본의 역사와 문화>

조 승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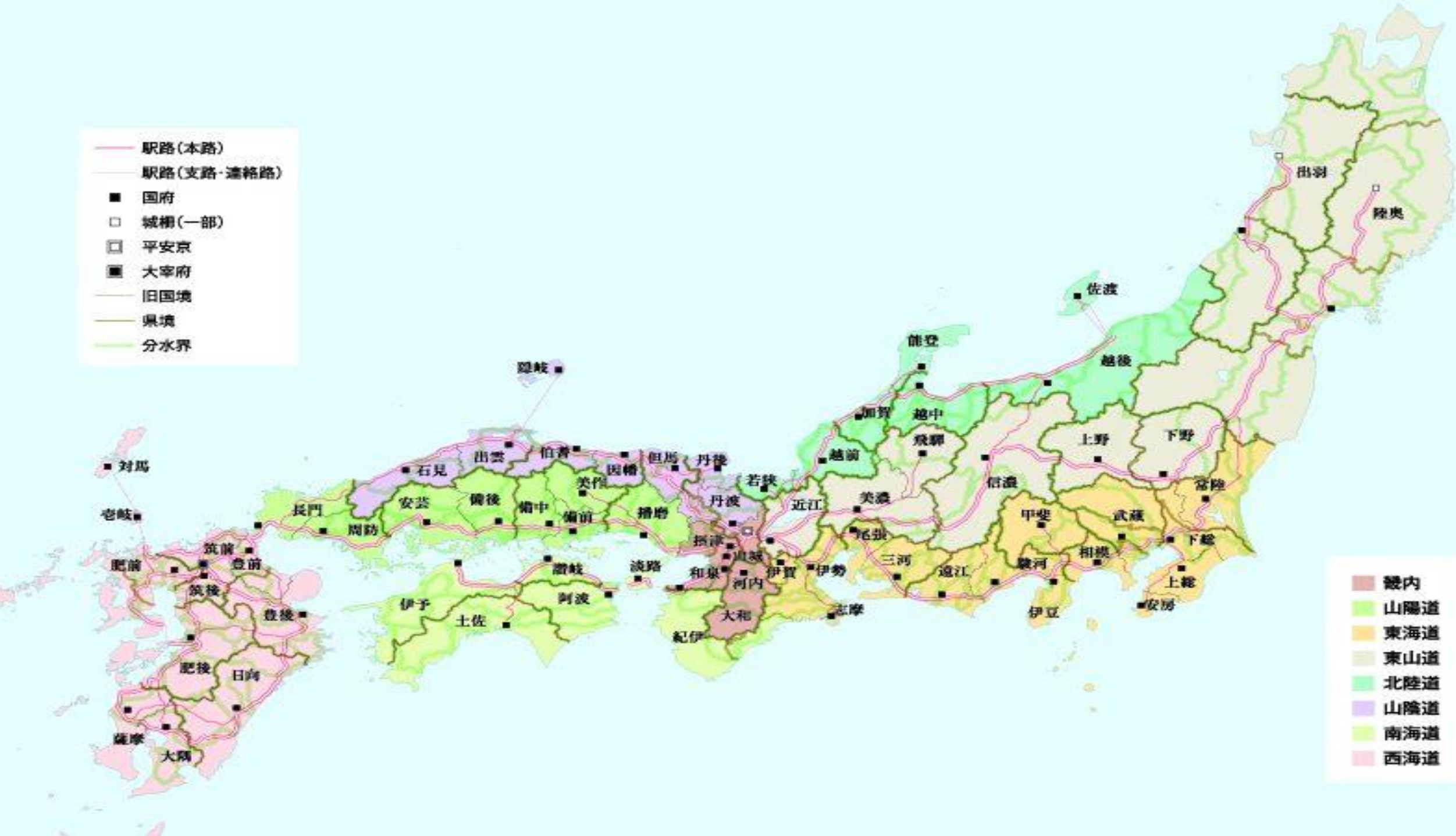
일본사 연표



야마토(大和) 왕조

- 4C 초 야마토 지방에서 등장
 - 전방후원분의 주인들?
 - 천황(=대왕) + 지역 수장의 연합 정권
- 6C 전반 게이타이(繼體)26대 천황 507~531의 본격적인 전제 왕권 수립
 - 부레쓰(武烈)25대 천황와는 관련 없는 인물
 - 오진(應神)15대 천황 270~310의 5대손(『일본서기』의 주장)
 - ↔ 천황의 계보는 만세일계(萬世一系)?
 - 현 일본 황실의 시작

- 駅路(本路)
- 駅路(支路・連絡路)
- 国府
- 城柵(一部)
- 平安京
- 大宰府
- 旧国境
- 県境
- 分水界



- 畿内
- 山陽道
- 東海道
- 東山道
- 北陸道
- 山陰道
- 南海道
- 西海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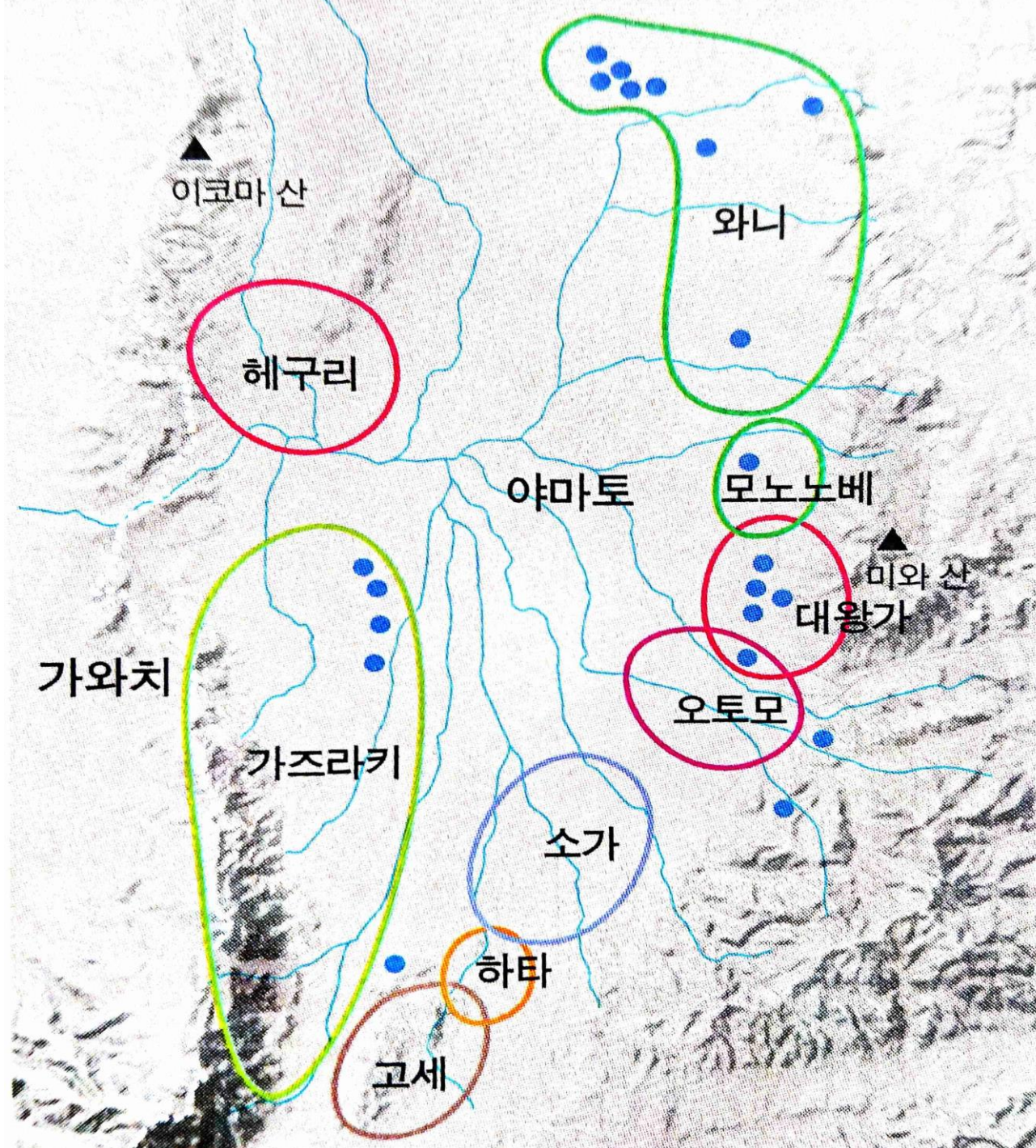
I 야마토(大和) 왕조

- 6C 후반 긴메이(欽明)29대 천황 539~571의 즉위로 권력 집중
 - 지역의 호족 세력과의 연대
 - 아스카(飛鳥)나라 현 남부를 중심으로 궁이 조영되기 시작
 - 아스카 시대 6C~7C
- 아스카 시대
 - 중앙 정치 조직을 갖춘 일본 최초 통일 왕조의 시대
 - 유력 호족 세력을 배경으로 한 권력의 집중 발생
 - 대륙 문화의 수입 통해 일본 고대 국가의 기틀 확립
 - + 아스카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며 지역 개발 주도한 곳



우지·가바네(氏姓) 제도

- 야마토 왕조의 지배체제가 구축되어가는 과정에서 등장
- 우지(氏)
 - 지방의 지배자인 호족과 그 동족들이 공유하던 호칭
 - 우지 단위로 정치에 참여
- 가바네(姓)
 - 군주가 특정한 호족(=우지)에게 수여한 정치적·사회적 존칭
 - 오미(臣) · 기미(君) · 무라지(連) 등이 대표적
 - 야마토 왕조에 복속한 지방 호족들의 관료화 나타냄
- 오미와 무라지를 각각 대표하는 소가 씨(蘇我氏)와 모노노베 씨(物部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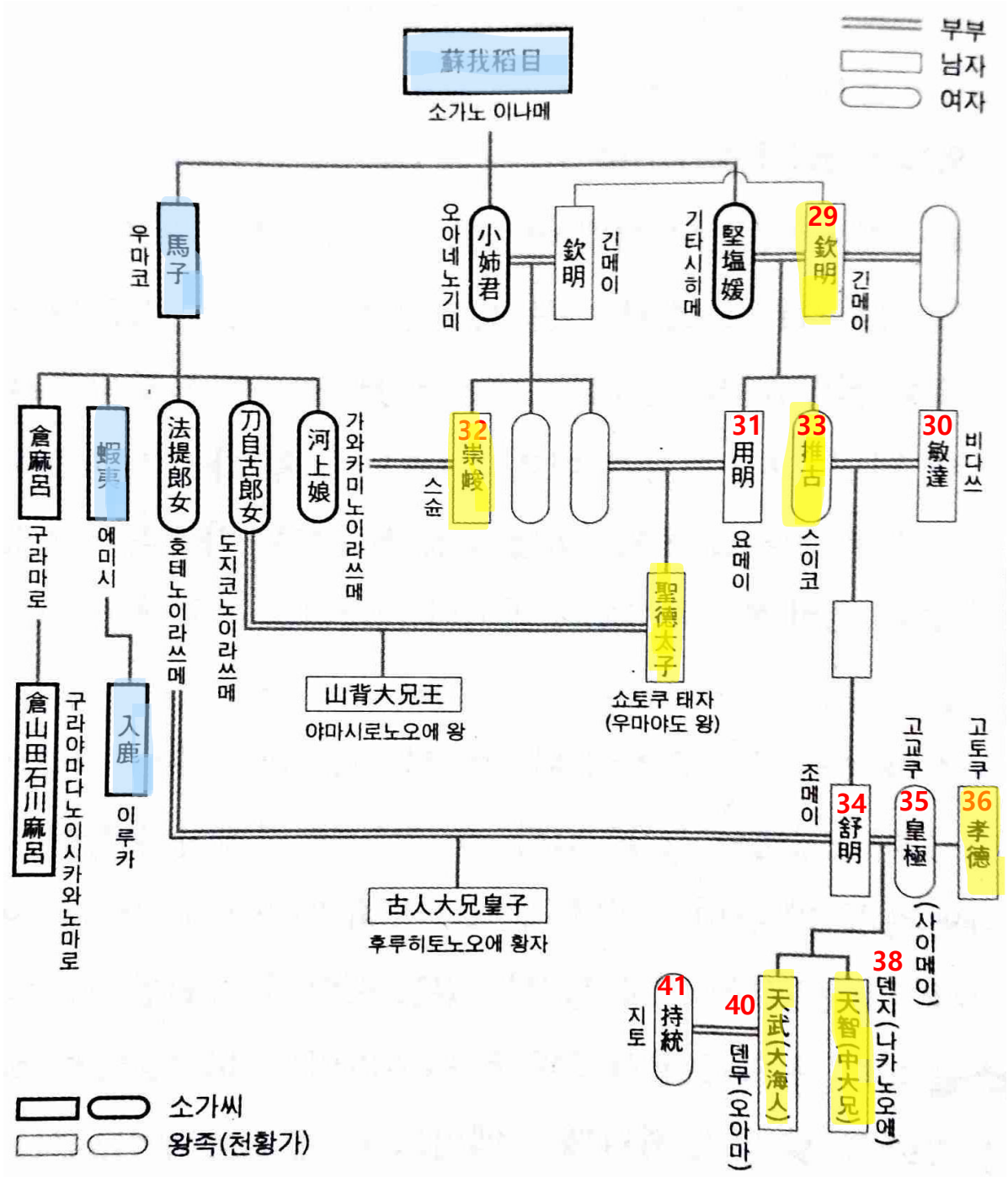


I 소가 씨 vs 모노노베 씨

- 야마토 왕조의 중앙 조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 두 호족 집단
- 6C 후반 불교의 수용 여부 둘러싼 논쟁
 - 소가 씨의 승리⁵⁸⁷로 끝이 나며 강력한 권력 쥐게 됨
 - 소가 씨 = 조정의 모든 신하 그룹을 대표하는 유일한 존재

불교 수용과 소가 씨

- 6C 전반 불교의 민간 전래
 - 도래인(渡來人)들이 경전과 불상 가지고 와 개인적으로 신봉
- 소가 씨 일족의 불교 신봉
 - 역병 유행은 불교를 믿어 국신(國神)의 노여움 샀기 때문이라는 모노노베 씨의 주장
→ 불교 배척
- 일본에서의 숭불·배불 논쟁은 소가 씨와 모노노베 씨의 주도권 싸움



실질적 권력자 소가 씨

- 불교 수용 항쟁에서 모노노베 씨에게 승리 후 조정의 대표자
: 사실상 '소가 씨 정권' 587~645의 수립
 - 왕을 칭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의 정치적 지위 약 1백 년에 걸쳐 대대로 세습
- 왕위 계승 문제에 적극 관여
 - 스순(崇峻) 32대 천황 587~592 이 왕권 강화 의도에서 소가 씨 견제하자 암살
 - 스이코(推古) 옹립 33대 천황 592~628하며 섭정으로 쇼토쿠 태자(聖德太子) 내세움
- 친백제 노선
 - 백제 도래계 씨족?
- 건수사(遣隋使) 파견 시작하며 중국과의 관계에도 적극적 (이이토코도리 いいところ取り)





Kudara River

Sakai Municipal
Tsukuno Kindergarten
堺市立津久野幼稚園

Ministop
ミニストップ 堺
津久野町店
편의점

7 조메
7丁

5 조메
5丁

미야시모초
宮下町

1 조메

아스카 문화

- 대륙으로부터 받아들인 불교 중심 문화
- 우지데라(氏寺) 건설 붐
 - 특정 씨족의 위세 과시하며 일족의 번영 기원
 - 소가 씨의 아스카데라 등
- 국보 1호 나라 호류지(法隆寺)의 목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 우지데라 건설 위해 한반도로부터의 기술자와 승려 대거 파견





고대 일본과 동아시아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정치적 변화의 파동 역시 동시적으로 연계되고 있었다

I 동아시아의 격변기와 야마토 왕조

- 6C 말 수(隋)의 중국 통일⁵⁸⁹과 군사적 긴장
 - 백제뿐 아니라 고구려·신라 역시 수와의 대결국면 의식해 야마토 왕조와 친교
- 7C 초 강력한 통일 제국 당(唐)의 등장⁶¹⁸
 - 당의 지속적인 확장은 동아시아의 정세에 불안 확산
 - 주변 각국에서 권력의 집중 시작
- 야마토 왕조가 직면한 외교적 과제
 - : '동아시아 세계의 변화된 질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이카 개신(大化改新)

-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적 체제 복권
- 7C 중반 을사(乙巳)의 변⁶⁴⁵
 - 나카노오에(中大兄) 황자 + 나카토미노 가마타리(中臣鎌足)가 주도한 소가 씨 일족 타도
 - 고교쿠(皇極)35대 천황가 물러나며 고토쿠(孝德)36대 천황 645~654 즉위
- 고토쿠의 국정 쇄신 (= 다이카 개신)
 - 일본 최초의 연호 다이카(大化) 사용
 - 공지공민제(公地公民制)로 대표되는 개신의 조 발표⁶⁴⁶
 - 친백제 노선 → 친당·친신라 노선





“모든 토지와 백성은 국가의 소유로, 천황이 지배한다.”

“호적을 만들고 그에 따라 토지를 분배한다.”

-개신(改新)의 조(詔)⁶⁴⁶

I 야마토 왕조의 국제 전쟁

- 한반도 국가들의 갈등 상황은 야마토 왕조에도 영향
- 고토쿠 vs 나카노오에의 대립
 - 고교쿠가 복벽(復辟)하여 사이메이(齊明)37대 천황 655~661 즉위
 - 친백제 노선으로의 복귀
- 백촌강 전투⁶⁶³
 - 백제+일본 vs 신라+당
 - 역사상 처음으로 한·중·일이 맞서 싸운 전쟁
 - 백제 멸망 후 왕족 복신(福信)의 백제 부흥 운동 원군 요청⁶⁶⁰
 - 군사 2만 7천 명 파병

I 패전 이후의 야마토 왕조

- 국가적 위기 상황 속 덴지(天智)38대 천황 661~671의 지배체제 강화하려는 조치
 - 망명해온 백제 귀족들의 지식 활용하여 각종 제도 정비
 - ← 참패 후 10만이 넘는 백제 유민들의 망명
- 나당 연합군의 공격 대비해 백제인들의 기술 이용한 산성(山城) 축조
- 역설적으로 패배 후 야마토 왕조의 권력 강화

1. 7세기 동아시아와 백촌강 전투

신라군의 진격 루트

당군의 진격 루트

왜군의 진격 루트

산성

(667) 산성 설치 연도

수·당의 원정군을 여러 차례 격퇴했으나, 국력이 피폐해져 668년 나당 연합군에 패해 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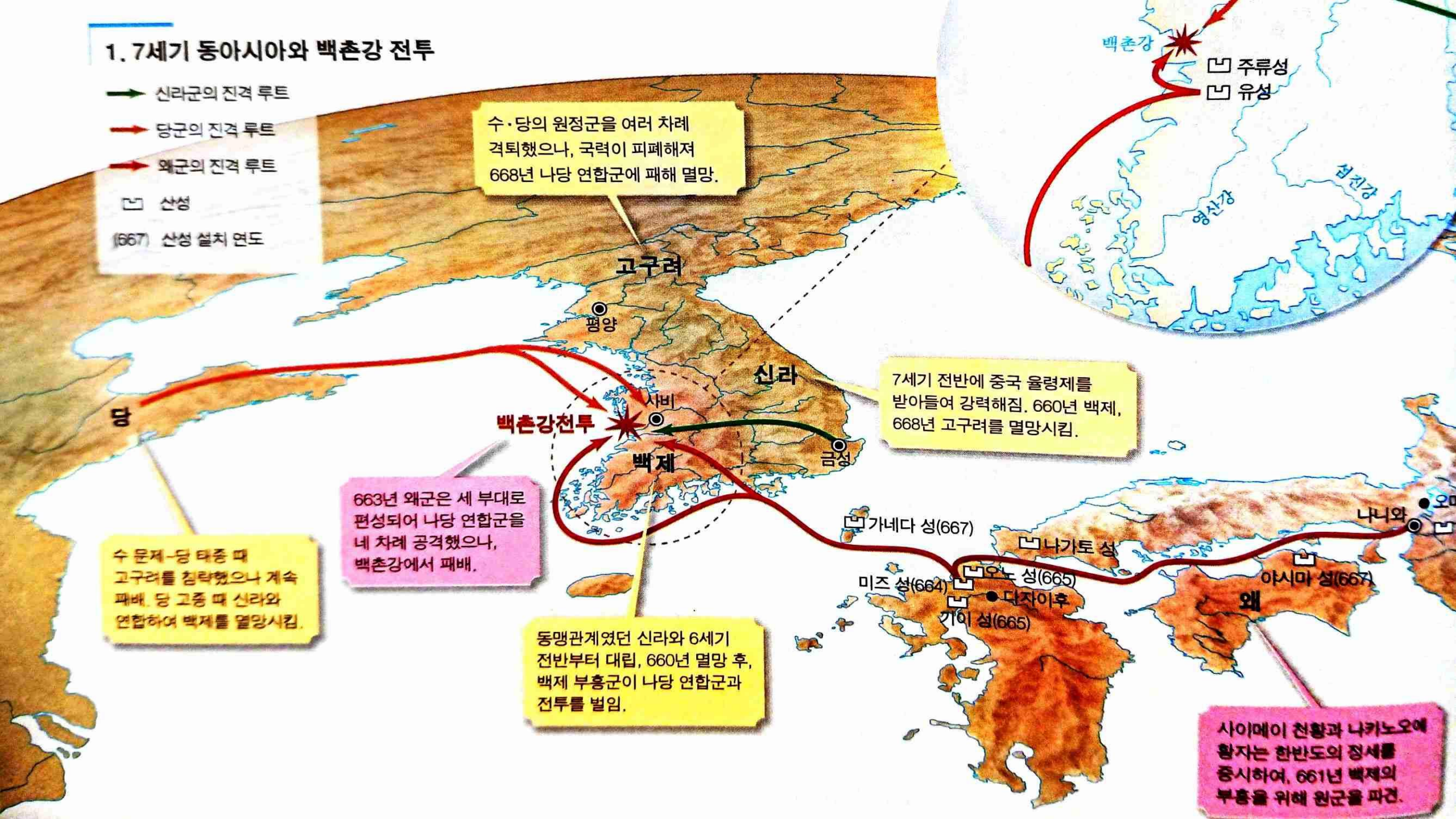
7세기 전반에 중국 율령제를 받아들여 강력해짐. 660년 백제,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킴.

663년 왜군은 세 부대로 편성되어 나당 연합군을 네 차례 공격했으나, 백촌강에서 패배.

수 문제-당 태종 때 고구려를 침략했으나 계속 패배. 당 고종 때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킴.

동맹관계였던 신라와 6세기 전반부터 대립, 660년 멸망 후, 백제 부흥군이 나당 연합군과 전투를 벌임.

사이메이 천황과 나키노오에 황자는 한반도의 정세를 중시하여, 661년 백제의 부흥을 위해 원군을 파견.





고대 일본은 과연 '후진국'이었는가?

감사합니다